

부산지역 사육 돼지 및 축산물가공품의 E형 간염 실태 조사연구

I 연구목적 및 필요성

- E형 간염 바이러스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인수공통점염병으로 돼지를 비롯한 많은 동물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되고 있으므로 부산지역의 E형간염 감염실태를 파악하여 돼지 사육 농가의 경제적인 손실감소에 기여 및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

II 연구개요

- 기 간 : 2021. 1. 1. ~ 2022. 12. 31.
- 대 상 : 부산 지역에서 사육농가 돼지의 분변 100건, 혈청500건, 축산물가공품 100건
- 항 목 :
 - 항원검사 : RT-PCR을 통한 바이러스 검출(분변, 축산물가공품)
 - 항체검사 : ELISA검사를 통한 감염항체가 검사(혈청)

III 연구결과

- 돼지 분변 116건, 축산물가공품 183건, 혈청 724건 시료 채취 후 돼지 E형간염 항원, 항체 검사완료
- 돼지 E형간염 항원·항체 양성을 결과

표 1. 항원양성을

HEV	검사(건)	양성(건)	양성률(%)
분변	116	4	3.4
축산물가공품	183	0	0

표 2. 항체양성을

	검사(건)	양성(건)	양성률(%)
HEV	724	174	24.0

IV 정책연계방안

- HEV는 외피가 없는 바이러스로 환경에 장시간 존재 및 전파에 용이하나 구제역,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이 적합한 소독제가 현재 알려진 바가 없으며 HEV백신은 만들어져 있으나 상용화가 되어있지 않음
- 돼지 호흡기 세균성, 바이러스성 질병에 걸렸을 시 HEV가 더 감염이 잘된다는 논문결과로 미루어 양돈 관련 종사자 대상 질병 교육
- 직접 섭취하는 가공품에서 가공온도 71°C, 20분 이상 가열 시 사멸하므로 가공 처리 온도 준수가 반드시 필요

V 활용계획

- 양돈 관련 종사자 및 축산물 가공품 처리 관계자는 돼지 분변 및 HEV에 오염된 매개 물질과의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므로 부산시 내 양돈산업 종사자 및 축산물 가공품 처리 관계자에게 방역 준수 홍보